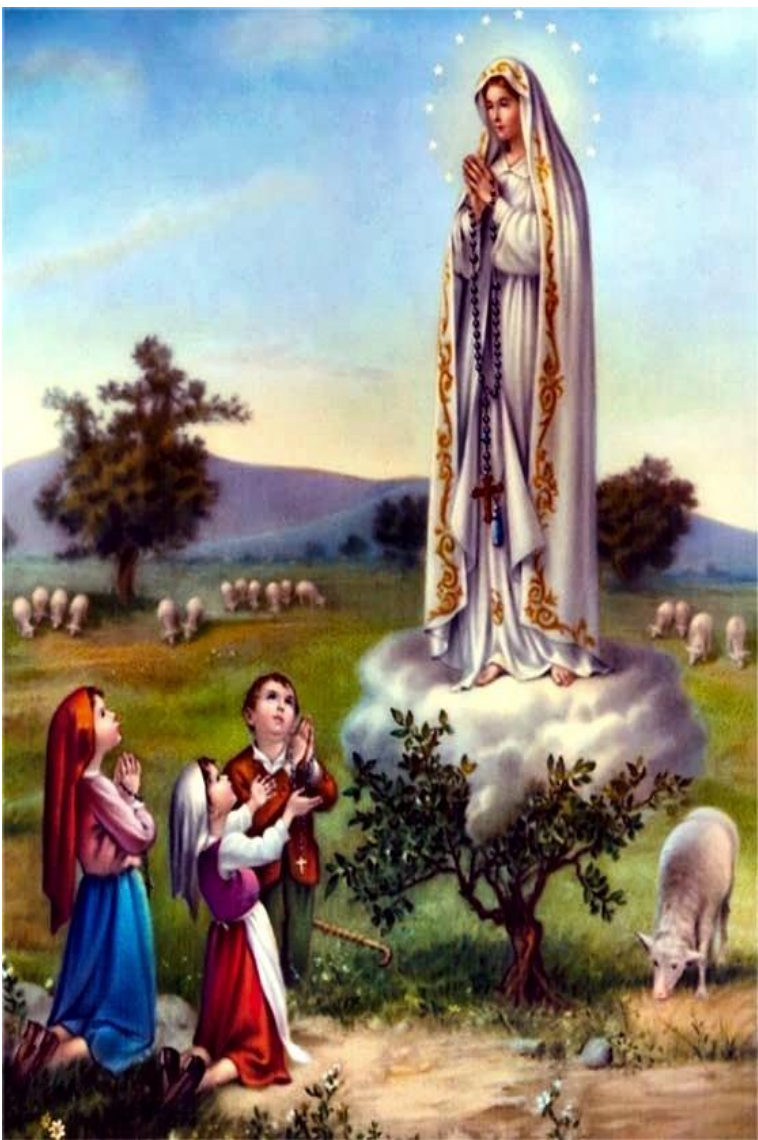


파티마의 성모님

시대적 배경은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!!

시대적 배경

당시 세계는 1914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. 이 전쟁은 훗날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명명되었으며, 유럽 내 인구 중 약 1천만 명이 죽고, 약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. 오스트리아, 독일,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이 동맹과 협상을 맺으며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으나,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의 저항으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던 상황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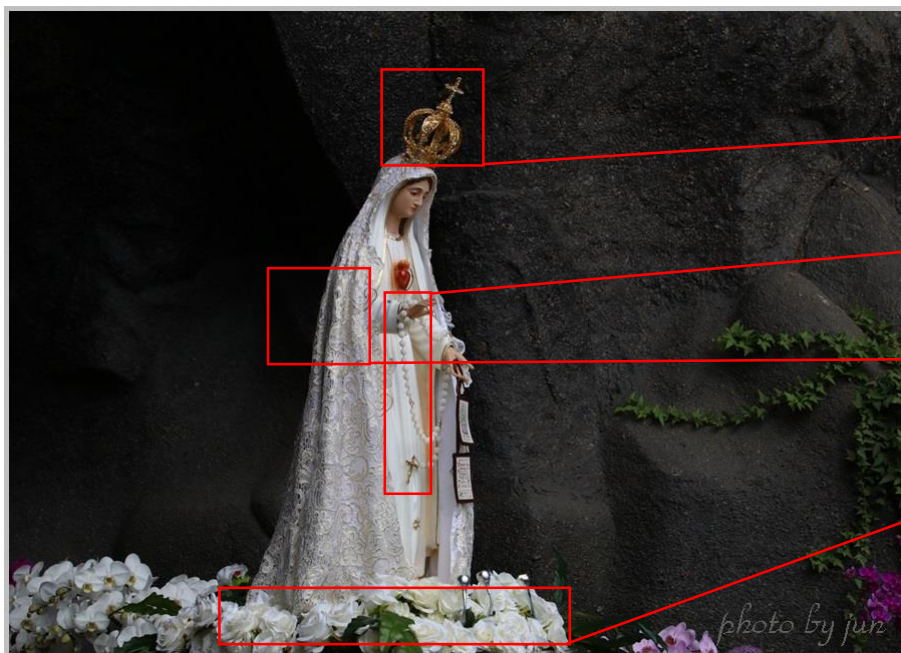
발현 당시 상황

1917년 5월 13일, 포르투갈의 산타렐 현 빌라노바데 오렐에 있는 마을 파티마에서 작은 돌담을 쌓으며 놀고 있던 세 어린이 루치아, 프란치스코, 히치타는 갑자기 번개와 같은 섬광을 보았다.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양떼를 몰고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, 다시 번개와 같은 섬광을 보았고, 몇 발짝 앞에 있는 작은 떡갈나무 위에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. 아이들이 부인에게서 나오는 광채 안에 휩싸이자 부인은 "두려워하지 마라. 나는 너희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란다." 라고 하였다. 존재를 묻는 아이들에게 부인은 "나는 너희들이 여섯 달 동안 계속해서 매달 13일 이 시간에 여기로 나와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왔단다.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는 나중에 말해주마." 라고 하며 '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칠 것' 을 당부하신 뒤 빛 안에서 사라지셨다.

이후 5번 더 세 아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'전쟁이 끝나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의 기도를 계속 바쳐라.' 는 말씀을 전하셨으며,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태양의 기적을 보이셨다.



성모님의 특징



왕관

진주와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

발밑까지 늘어뜨려진 흰색 베일

구름위에 서 계심



발현과 메세지

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여섯 번 발현하신 동안 성모님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희생으로 참아내며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보편을 생활화하도록 요청하셨다.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신다.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

또한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매월 첫 토요일에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보속하는 의향을 지니고 ①영성체 ②고해성사 ③묵주기도 5단 ④15분 동안 묵주기도의 열다섯 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임종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셨다.

